

## 8강 벤야민과 언어철학 1

### ◆1교시: 벤야민과 언어철학(1)

#### ▲ 언어철학에 들어가기 앞서

언어철학을 한 다음에는 제가 그 문예이론, 그러니까 소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설은 마르셀 프루스트하고 프란츠 카프카를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역사철학 부분도 어렵지만 언어철학도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특히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기호론하고 연결해서 까지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롤랑바르트 얘기도 좀 해야 하고 이제 그래야 하는데. 시간이 좀 충분하면 한,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벤야민의 그 언어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벤야민의 언어철학이라고 우리가 얘길 할 때, 크게 나눠서 두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그 language, 언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담의 언어다’란 말이 나오는데, 말씀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벤야민이 바로 ‘현재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철학에서 개념화 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철학에서는 바로 이 ‘아담의 언어’ 이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지구요. 그래서 언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 철학에서.

또 하나는 바로 이 mimesis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벤야민에게서 이 미메시스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 편으로는 굉장히 인간학적인 어떠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언어철학하고 연계 되가고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문예이론에 들어가면 마르셀 프루스트든지, 프란츠 카프카든지 여러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문학 속에서 소위 문학적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하고 물어보게 되면 그거를 사용되는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mimesis적 언어다, 문학적 언어는.

일반적 언어와는 특별한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미메시스적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길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개념을 좀 이해하는 게 벤야민의 언어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될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translation이란 뭔가. 번역이란 뭔가, 하는 벤야민의 번역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 언어에 대한 언어철학과 기호학의 차이

일단 그 벤야민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문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발표된 논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도 생각을 깊이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이 콤플렉스로 엉키기만 하니까 그걸 한 번 정리하려고, 발표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정리하려고 남겨놓은 그런 언어 론에 관한 작은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이 사실은 벤야민의 언어론의 가장 베이직이 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한 마디로 얘기하면, 바뀌서 얘기하면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언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목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벤야민이 언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언어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에서 창세기를 이제 말하자면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언어 론은 창세기를 나름대로 읽으면서 그거를 자기의 언어관 쪽으로 transformation하는, 재해석 하는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소위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이죠.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 보면 벤야민이 이런 식으로 창세기의 몇 가지 사건들을 더듬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손으로 막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 뿔로 했다는 거지요? 말로 했다,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즉 언어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특성은 이제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듯이,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있으라함에, 있었다.’ ‘되라함에 되었고, 있으라함에 있었다.’ 일주일동안 천지창조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뭐 땅이 있으라함에 땅이 있었고, 그리고 강이 있으라함에, 되이라함에 되었다. 이게 소위 신적 언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이게 언어 론을 이해하려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첨예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인가? 있으라함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흔히 그걸 창조적 언어라고 하지요. 창조적 언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그러니까, 언어가 지시적이냐, 아니면 언어가 창조적이냐. 언어가 창조적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게 거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엔 없지만, 지금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 있으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짜장면 있는 거예요. 딱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웃으세요? 그 얘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좌우지간. 소위 창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창조라고 하는 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니까? 소위, 기호론 적으로 얘기하면, 말은 두 개의 항을 갖고 움직이는데 하나는 시니피앙sa이고, 하나는 시니피에s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표라고 얘기하고, 기의다 이렇게 얘길 하죠? 그래서 내가 예컨대 자전거다, 이렇게 하면 시니피앙. 자전거는 뭐죠? (-자전거 그림을 그리며-)이거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자전거다. 언어는 우리를 커뮤니케이션 시키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소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라함에 있었다가 아니라 뭘니까, 이거는? media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가져 와’ 그러면 자전거를 가져 오고 있죠. 그렇지만 자전거가 있으라함에 자전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겨나진 않죠.

그걸 바로 이제 언어 철학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어를 이해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를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언어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언어철학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기호로 이해할 것인가. 기호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지시 관계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접 시니피에가 시니피앙의 시니피에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자전거라고 쓰지만 이게 자전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냥.

우린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자전거라고 하면 벌써 떠오르죠, 그죠? 이 자전거가. 이거(문자 ‘자전거’) 하고 이거(발로 두 바퀴를 돌려 움직이는 이동 수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문자 ‘자전거’)는 단순히 뭘니까? ‘ㅈ’이렇게 생긴 거 하고, ‘ㅊ’이렇게 생긴 거하고 ‘ㅈ’이거 한 번 더한 다음에, ‘ㅊ’이거 거꾸로 하고 ‘ㄴ’, 이거예요 단순히. 딴 게 아예요. 기표죠. 기표. 애(기표)하고 이거(기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 갖고 오나라’ 그러면 이걸 갖고 온단 말이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 ‘의미화’가 일어났다. 의미화가. 사실 아무 관계도 없는 두 개를 관계있는 것으로 만드는, 뭘니까? Function이 있다, 이 안에. 아니면 operation이 있다. 그것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표와 기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언어 때문이 아니라, 뭘니까? 언어가 발생시키는, 뭘니까? 의미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언어철학 이후의 언어 이해방식인 기호론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언어철학, 언어를 철학으로, 철학적 대상으로 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계냐고 하면, 그래 맞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 의미화라고 하는 의도적인, 둘 사이에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관계 짓는 의미화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즉 간접 행위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즉, 기표와 기의 아니면 - 사실 언어철학에서 기표, 기의란 말을 안 쓰니까- 단어와 대상 이렇게 쓰죠. (기표, 기의)이건 기호론에서 쓰는 말이고.

언어철학 적으로는 단어와 혹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개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개념과 사실 이 사이에 서로 이것이 떨어져 있는 간접화 현상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원래는 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가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즉 말하자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단어와 사실 사이에 그게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간접화 현상을 통한 의도적인 의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책상’이라는 단어하고 이 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언어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언어철학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쏘쉬르에 의해가지고.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예가 뭐냐면, 관계가 있다면 단지 대체 기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예컨대 한 단어가 한 사물을 지칭 할 수 있을 뿐이예요. 예를 들면, 책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책상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책상이든 어떤 거든지 좌우지간 어떤 하나와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소통의 혼란이 안 일어나죠. 하나의 단어, 예를 들면 책상이 의자도 되고, 자전거도 되고 그리고 지시 관계가 여러 가지라면 이게 됩니까? ‘책상 갖고 와라’ 그러면 어떤 높은 책상 갖고 오고, 어떤 높은 자전거 갖고 오면 이게 되겠어요? 안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통이 되려면 하나의 시니피앙은 꼭 하나의 시니피에만을 지시해야 돼요. 근데 이 지시 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책상을 의자라고 부르면 우리가 ‘의자 갖고 와라’ 그러면 책상 갖고 오는 거지. 대신, 의자를 가지고 또 의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대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의자를 얘기할. 그게 책상으로 바뀌면 돼. 약속이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책상’이, 이 책상을 가리키는 관계는 상호간의 본질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책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의자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바뀌어도 된다.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자라고 하는 시니피앙으로 연결시키기로 하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책상이라고 하면 의자를 갖고 오게 돼있다, 이거죠.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쏘쉬르에 의하면 ‘자의적’이다, 그래요. 언어를 소통시키고 있는 것은 기본 구조가 자의성이다, 그러니까 약속하기 나름이다 그 애깁니다. 그런데 언어철학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책상이라고 부를 때는 그 책상이라는 단어하고 책상 사이에 본질적으로 무슨 소통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단어에 대한 연금술이 생겨나는 거지요. 단어를 오래 들여다보면, 오래 들여다보면 바로 그 단어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의 본질이 떠오른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서예 같은 것도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서 읽기예요. 성서 읽기.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에는 - 믿으시는 분들은 막 저거 하시겠지만-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텍스트가 수 천년동안 해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텍스트의 어떤 그 간편한 그런 간편함이 아니라, 쓰여 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해석된 의미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 론은 서구의 경우,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예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뭐, 성경의 어떤 구절이 쪽 있으면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뭐죠? 그 기록자인 제자들이 바로 전수해가지고 일조의 사면처럼, 전수해가지고 그 안에 글을 쓰면서 같이 집어넣었던 혼. 그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조는 사람도 많지만 보면서. 좌우지간 저도, 제가 자꾸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보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제 사적인 얘기를 뭐 무슨 노출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좀 강의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저의 집사람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목사님 딸인데, 저는 전혀 그 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 또 사정이 있어요. 여기 서울에 있었으면 단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을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컨텍스트에서 빠져 나와 갖고 먼 나라에 가니까 둘이 만나게 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 그 설교, 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우리 장인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또 봉사도 해야 되니까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는데 저는 진짜 괴롭거든요, 그거 들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농담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아, 진짜 저런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다녀야 될 거 같은데, 책 일기부터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책을 읽을 줄 몰라. 아니 누구나 봐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구조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구를 따라서 그냥 얘기를 할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시험 보면 김소월의 유명한 <진달래꽃> 보면, 님이 누구냐 그러면 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좌우지간 이미 그 때부터 우린 뭘니까?

있는 대로 읽지 말고 글이라는 건 그런 거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읽지 말고 딴 게 있다고 읽어야 하는데 그 공부를 안 하신 거 같아요, 내가보기엔. 난 그런 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의, 그 성경읽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연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거지요. 언어철학 쪽에. 그러니까 벤야민도 바로 거기서 텍스트 읽기란 무엇인가 하는 것, reading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벤야민도 텍스트를 두 개의 층위로 가르다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런 사실 층위하고, 그 다음에 진리 층위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층위는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린 말하자면 사실 층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정보다, information이다. 진리 층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와 경험은 전혀 다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용서나 요즘 보면 하도 뭐 재테크 하는 뭐, 무슨 뭐 또 자기 정체성 찾기 뭐 어찌고저찌고 이러면서 실용서라 그러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읽기 자체를 정보로만 받아들이게 만

드는 그런 읽기로 자꾸 몰아가고만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바로 우리 사유 능력도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그 사유를 통해서 지혜로까지 번져나가고 이런 것이 바로 독서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인데 이게 이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인포메이션으로만 읽게 자꾸 만든다, 이거죠.

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실용서가 자꾸 많이 팔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축적해오고 오랫동안 우리가 참 좋은 덕목으로 교양해 온 이 독서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전 기본적으로.

## ◆2교시: 벤야민과 언어철학(2)

### ▲ 언어에 대한 언어철학과 기호학의 차이

어쨌든 간에 언어철학 적으로 얘기 할 때는 바로 단어와 사실, 대상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게 이제 소외됐다. 그래서 언어철학 적으로 언어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외된 것을 회복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언어철학적인 입장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즘의 담론 체계가 언어라는 게 기호냐, 아니면 철학적 대상이나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미 많은 부분 더 이상 이제 언어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소위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가 정착이 되면서 밀려나가고 지금은 이제 전부 기호론 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러나 기호론 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순전히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롤랑 바르트나 아니면 크리스테바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미올로지의 입장에 있지만 그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가 다름 아닌 바로, 이 잃어버린 어떤 그런 본질적 관계, 혹은 라캉 식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욕망, 롤랑 바르트 식으로 얘기하면 탈포드 적인 것. 푸코 식으로 얘기하면 광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거점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시 얘기가 되고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담론 체계라는 게.

어쨌든 간에 문제는 지금 벤야민도 거론하고 있는 기점이 뭐냐 하면 바로 언어철학적인 기점이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언어철학적인 그런 입지를 내세우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뭐냐 하면 바로 벤야민이 기호론적인 언어이해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벤야민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수적인 언어철학적인 입장을 고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벤야민의 바로 아주 특이한, 그리고 벤야민이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많이 담론 화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바로 오늘날 롤랑 바르트나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기호 속에 바로 탈 기호적인 것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 점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벤야민은.

다시 말하자면 바로 벤야민은 언어철학적인 입장을 기호론적인 언어이해를 비판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언어철학적인 본질을 주장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호적인 언어 속에 내장돼 있는, 말하자면 언어의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언어의 뭐라 그러면 될까요? 무의식이란 말은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를 오히려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복잡적이예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담의 언어’를 얘기하고 'mimesis'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폴랑 바르트 얘기를 좀 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어쨌든 바로 창세기 언어를,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 합니다, 벤야민이. 신은 이 세상을 언어로, 말로 만들었는데 그 신의 말은 창조적 언어는 되라함에 되었고 있으라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하자면 신적 언어의 특성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니까? 창조다, 라는 거예요. 없던 건데 말해서 있게 만드는 거. 그거를 벤야민은 신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은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사물들 그리고 모든 그런 대상들을 말로 창조했고 말을 창조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 창조 얘기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카오스죠, 그죠? 카오스인데 카오스를 바로 세상으로 만들었다, 유로 만들었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창조는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느냐, 없던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건 바로 신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언어를 바로 이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 넣었다. 쉽게 얘기하면, 성교를 안 했지만 말하자면 임신 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 지 아시겠습니까? 말로 임신시켰다. 없었는데, 생겨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지창조에 의하면 이 세계는 신이 언어로, 말로 통해서 없던 것들 속에 정신 을 불러 넣어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된 사물 속에는 신 의 정신성이 깃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정신성이 깃들어 있다. 즉 사물들 속 에는 신의 정신성이 깃들어 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벤야민이 천지창조를 읽으면서 발견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러나 신이 단 하나, 말로 창조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뭘니 까? 사람이죠. 신은 모든 걸 말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말로 창조 안했다. 뭘로 창조했습니 까? 흙으로 만들었죠. 중요한 건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에 벤빌트, 자기와 동형으로 만들었다, 그죠? 그렇죠? 자기와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도대체 벤야민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왜 신은 인간은 말로 안 만 들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들면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을까? 혹은 똑같이 만들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언어철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면서 벤야민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 하나하면, 신은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언어로 창조하지 않고 자기와 동형의 존재로서 창조 했을 때, 그 ‘동형’의 의미. 우리 뭐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과 유사한 형 체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성경 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나오게 되죠. 이 몸이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뭘니까?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철저하게 청교도적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 이 후에. 절대 그 추잡한 짓하면 안 돼, 예컨대.



이 깨끗하게 가지고, 이게 성결주의죠? 성결주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리가 분과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벤야민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동형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신뿐이거든요. 근데 신과 동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니까? 언어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대신 사물은 뭐죠? 언어의 능력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그래서 벤야민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다 같이 그 내부에 신의 정신성을 껴안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 뭐냐 하면 사물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의 정신성을 드러낼 때, 그 모습 자체로만 드러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바로 신의 정신성을 드러낼 때 자기 모습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가지고 바로 벤야민이 창세기를 통해가지고 나누고 있는 바로 언어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서, 신의 언어가 있다. 인간의 언어가 있다. 그리고 사물의 언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언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언어다. 그리고 사물의 언어는 바로 신의 정신성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야말로 형상의 언어다. 그 모습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그래서 벤야민이 나중에 보면 이 사물을 응시하는 데 이 책상을 응시하든, 아니면 의자를 응시하든, 도시의 건물을 응시하든 바로 그 응시의 시선이, 뭐 여기 텍스트 보면, 깊은 응시의 시선이 있는데, 그리고 벤야민의 이미지가 또 이미지가 뭔가 벤야민한테 그렇게 이미지를 응시, 이미지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결코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뭐니까? 신의 창조된 정신성을 드러내는 언어예요, 대상들에. 그래서 벤야민은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혹은 형상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바로 정신성을 읽어내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 그래서 벤야민이 이렇게 하지요. 텍스트에 대해서는 독서란 무엇인가? 쓰여 지지 않은 것을 읽는 능력이다. 본다는 건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쓰여 지지 않음, 그리고 보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나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언어철학 적으로 애길 하게 되면, 바로 신에 의해서 창조 돼서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정신성이예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있다. 근데 인간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신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신성은 이런 것이오,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인간이 바로 사물에게 명명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정신성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자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게 다시 말하자면 사물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바로 자기의 정신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는 창조 언어도 아니고, 형상 언어도 아니고, 명명 언어다. 즉 이름 언어다. the language of name 혹은 the language of naming, 이름을 주는 언어다.

이게 바로 최초에 인간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언어가 있었다면 그

언어는 바로 아담의 언어이고, 아담의 언어는 뭐냐? 명명하는 언어이다. 도대체 사물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은, 사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없기 때문에 형상으로만 드러내는데 형상으로 드러낼 때는 언제나 형상을 통해서는 바로 그 정신성이 전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뭐냐 하면 바로 언어를 필요로 해. 사물은 언어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언어를 빌려 와야 돼.

그건 바로 인간으로부터 언어를 빌려와야 된다. 인간으로부터 언어를 빌려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바로 사물에게 언어를 수여해야 된다, 선물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해준다는 게 뭐냐? 바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다. 민들레꽃이 있으면, 너는 민들레다, 민들레가 그냥 너는 기호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반드시 민들레가 안 되도 돼요, 그죠? 장미라고 부르면 딴 게 장미가 민들레가 되면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벤야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민들레라고 이름을 붙여 질 때는 그 민들레라는 이름 속에 신이 민들레꽃에게 부여해 낸 그런 정신성이 그 안에 내장, 드러날 수, 표현되는 바로 그것이 이름이다, 그거예요. 인간의 언어 행위에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뭐냐 하면 그 사물에게 사물의 정신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언어 행위예요, 사실은. 인간이 그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어. 그게 바로 명명 언어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담의 언어라고 불러요.

Adam의 언어. 이름을 붙이는 행위, 사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 그 행위는 두 가지, 인간의 언어 행위의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물의 정신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름이며 동시에 또 하나는 사물의 정신성을 드러내는 그 명명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정신성을 뽐니까? 드러내는 행위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길 하고 있는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사물에게 정당한 올바른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물도 신의 정신성을 드러내고 인간도 자신의 정신성을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신적 언어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아담의 언어다, 명명의 언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의미구조는 결국은 태초에 언어라는 것 속에, 언어의 창조와 인간의,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일종에 언어의 소통의 그런 에텐동산이 가능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 매개 항이 뭐냐? 아담의 언어 때문이다. 아담이 사물에게 언어를 주고, 그래서 사물은 신과 소통을 하게 되고 인간도 사물에게 언어를 주는 그 행위 속에서 바로 신과 소통을 하게 되가지고 바로 신의 언어를 통한 이 창조 행위는 바로 신이 일주일동안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 날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서 뭐라고 자화자찬했어요?

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참 좋더라, 이게 뭡니까? 완벽하다 이겁니다. 완벽하다, 하나의 흠집도 없구나. 근데 그 언어철학적으로 벤야민이 볼 때는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구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 완벽하게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것에 바로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자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인간이 부여받은 언어를, 그 명명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바로 이게 이제 벤야민이 창세기를 첫 장 창세기를 읽으면서 맨 처음 이제 언어를 언급하면

서 바로 이 명명 언어, 아담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벤야민이 끊임없이 전제해 놓은 언어철학적인 측면을 나중에 언어철학과의 관계 내에서 텍스트를 읽거나 소설을 읽거나 뭐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회복하려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벤야민이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담의 언어를 수여하는 거예요 텍스트에다가. 그럼 그 텍스트가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신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 텍스트가 정신성을 드러내게 하면서 바로 읽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기 정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두 개가 결국은 소위 텍스트의 진리라고 부르는, 벤야민이 부르고 있는, 진리 층이라고 부르는 바로 신적 언어의 층위 속에서 그것이 하나로 소통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독서예요, 벤야민이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고.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옮긴다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이 소통 관계를 옮기는 거지 자구를 옮기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나와서 나중에 파리 파사주 것을 응시하면서 그 사물들 보는 것도 다 그 시선이고, 나아가서 도시의 마네킹 무슨 뭐 여자들의 블라우스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액세서리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바로 읽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 관계, 이 관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까 그 뿔꿀레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카타스트로페 이 몰락으로 붕괴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세계사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든지 가능성을 뽑아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응시하는 거죠, 벤야민은.

그 안에서 바로 타락한 언어, 타락한 어떤 이미지, 타락한 어떤 그런 형상들 속에서 그걸 바로 아담의 시선으로 응시하면서 그 안에서 그 타락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그 타락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바로 이 진리층위를 읽어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벤야민의 깊은 시선이고 멜랑콜리의 시선이고, 얘기하면서 문학에서 멜랑콜리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멜랑콜리의 시선이고, 알레고리의 시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응시의 시선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벤야민은 본다는 게 독서예요. 본다는 게 독서.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벤야민은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어쩌면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러한 기본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벤야민의 텍스트를 읽으면 조금 접근가능성이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어구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런 아주 아름다움 메타포나 은유를 사용하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접근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틀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기본틀은 벤야민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인식과 문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문제, 나아가서 바벨탑 관계, 바벨탑이 언어 혼란의 사건이죠, 그죠?

바벨탑문제 뭐 이런 걸로 건너가면서 다른 식으로 변주되고 그 끝에서 소위 기호론까지 내

려와서 기호론적인 측면을 바로 한 편으로는 비판하면서 바로 기호 속에서 기호를 끊임없이 응시하면서 기호는 말하자면 이러한 소통적 언어의 타락의 극치예요. 그치만 그거를 끊임없이 응시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이 진리층위를 기호의 진리층위를 동시에 떠올리려고 하는 노력, 아니면 그러한 언어적 어떤 접근방식이 이게 사실은 포스트, 후기 구조주의적 그러한 기호 읽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벤야민은 1900년도 중반에 죽고 말았지만 바로 지금 오늘날 벤야민을, 여러분이 어떤이유로 벤야민을 들으러 오셨는지 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담론 체계 내에서 벤야민이 끊임없이 새로 거론되는 그런 이유예요, 그게. 그런 측면에서 바로 왜 벤야민을 사람들이 자꾸 거론하는가?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컨대 제가 전공한 아도르노는 더 이상 거론 안하면서. 똑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 ▲ 다음 강의의 진행 방향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여까지만 하도록 하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언어 타락의 문제로 건너가고 미메시스의 문제 글로 건너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